

3연속 올림픽 출전…차준환 “밀라노서 모든 것 쏟아내겠다”

종합선수권 1위로 출전 확정…스케이트 문제 해결로 점프 난도 복구
김현겸, 올림픽 출전 자격 갖춘 선수 중 2위 기록…생애 첫 올림픽행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쥔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차준환(서울시청)은 올 시즌 내내 괴롭힌 스케이트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밀라노 무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차준환은 4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제80회 전국남녀 피겨 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결국 대표 2차 선발전에서 최종 총점 277.84점을으로 1위에 올라 1, 2차 선발전 종합 1위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차준환은 올림픽 3회 연속 출전 기록을 쓰게 됐다.

한국 피겨 선수가 올림픽 3회 연속 나서는 건 1988 캘거리 대회, 1992 알버타 대회, 1994 릴레헴메르 대회에 출전한 남자 싱글 정성일에 이어 두 번째다.

차준환은 2018 평창 대회에서 한국 남자 싱글 역대 최고 순위인 15위에 올랐고, 2022 베이징 대회에선 자신의 기록을 넘어 5위를 기록했다.

경기 후 차준환은 “그동안 스케이트 문제로 힘들었으나 다시 한번 올림픽 무대를 밟게 돼 기쁘다”며 “올림픽에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 시즌 차준환은 스케이트 부진 문제로 고생했

다.

고질적인 발목 부상을 안고 있는 차준환에게 스케이트 착용감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알맞은 스케이트를 찾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3개월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스케이트를 교체했다”며 “12개 이상을 착용해봤지만 잘 맞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차준환은 결국 작년 11월에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구성 난도를 낮춰 서민규(경신고)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는 1차 선발전 이후에도 스케이트 찾기에 몰두했다. 두 차례나 스케이트를 더 교체한 끝에 양호한 수준의 장비를 찾았다.

차준환은 “지금 착용하는 장비는 그럭저럭 적응한 상태”라며 “가능하면 이 스케이트로 올림픽에 출전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케이트 문제를 해결한 차준환은 밀라노 올림픽에서 최고 난도의 구성을 펼칠 계획이다.

그는 쇼트 프로그램에서 최대 2개, 프리 스케이팅에서 최대 3개의 워드러플(4회전) 점프를 시도한다.

차준환은 “대부분의 점프는 복구했다”며 “이제 내게 필요한 건 체력이라서 계속 훈련하면서 잘 할

수 있는 구성으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올림픽에선 개인전뿐만 아니라 단체전도 뛴다.

그는 “단체전도 개인전처럼 중요하다”며 “단체전을 마친 뒤 곧바로 개인전이 이어지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밀라노 무대는 차준환의 세 번째 올림픽이다.

차준환은 2018 평창 대회에서 한국 남자 싱글 역대 최고 순위인 15위에 올랐고 2022 베이징 대회에선 자신의 기록을 넘어 5위를 기록했다.

그는 “이번 대회도 이전 대회처럼 차분하게 준비하겠다”며 “대회 현장에서 세 번째 올림픽 출전의 의미를 찾겠다”고 밝혔다.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춘 선수 중 선발전 2위에 올라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김현겸(고려대)도 다부진 각오를 내비쳤다.

그는 “올림픽은 처음이지만,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한 만큼 마음을 편하게 먹고 좋은 연기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겸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지난해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도 출전했다.

하얼빈 대회에선 장엄과 발목 통증 등으로 프리 스케이팅을 기권했다.

김현겸은 “밀라노 무대에선 프리 스케이팅 진출이 1차 목표”라며 “하얼빈 아시안 게임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4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제80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결국 대표 2차 선발전 남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차준환(서울시청)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IOC 위원장 “러시아, 종전해도 개인중립선수로만 올림픽 출전”

국가명 사용 불허 방침 재확인

코스티 코브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내달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단의 국가명 사용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설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된다 고 하더라도,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만 무대를 밟을 수 있다.

코브트리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멜라 세라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러시아 선수들의 완전한 출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러시아 선수들은 개인자격중립선수

(AIN)로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달 말 기준 AIN으로 출전을 확정한 러시아 선수는 8명, 벨라루스 선수는 3명으로 모두 11명이다. 이들은 아이스하키나 네슬레이 경기 등 단체전에는 출전할 수 없으며, 크로스컨트리 스キー와 피겨 스케이팅 등 개인 종목만 나설 수 있다.

코브트리 위원장의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 스포츠계에서 러시아가 징계받는 상황에서 종전 협정이나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즉각적인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 회복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코브트리 위원장은 개막이 임박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준비 상황과 IOC의 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두 도시에서 개막식을 진행하고 여러 지역에 경기장이 흩어져 있

는 이번 대회의 분산 개최 방식에 대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라며 “이탈리아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미래 올림픽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OC 역사상 최초의 여성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고충도 털어놨다.

‘리더 역할과 워킹맘 역할을 어떻게 병행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코브트리 위원장은 “토마스 바흐 전 위원장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느냐”고 반문하며 웃어넘겼다. 그는 “능력 위주의 인사를 선호한다”면서도 “나의 결정이 미래 세대 여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경쟁에 대해서는 “유치 과정이 더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창립 80주년’ 전남도체육회 “100년 향해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2026년 시무식 겸 청렴선포식

창립 80주년을 맞은 전남도체육회가 2026년 시무식 겸 청렴선포식을 열고 전남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도체육회는 지난 2일 전남도체육회관 1층 다크 체육관에서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무식 겸 청렴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

송진호 도체육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전라남도체육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지난 80년간 선배 체육인들이 일궈온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 회장은 “도민과 체육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신년사에 이어 직원 대표의 새해 다짐, ‘회장에 게 바란다’ 소통의 시간, 청렴결의문 낭독 등이 진



행됐다.

또 전 임직원은 청렴 선포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되새기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짐했다.

도체육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 실천 활동과 내부 소통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체육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며 “전남체육 80년, 도약하는 100년’이라는 비전 아래, 체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전남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4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BNK금웅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을스타페스티벌. 경기 중 팬이 경기장에 들어와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농구 을스타전, 팀 포니를 승리

25점 활약 변소정 MVP

여자프로농구 을스타전에서 변소정(BNK), 진안 이 출전했다.

최우수선수는 25점을 넣어 팀 포니를의 승리에 앞장선 변소정이 차지했다.

을스타전에 처음 출전한 변소정은 최다 득점자에게 주는 득점상도 거머쥐었다. MVP 상금은 300만원, 득점상 상금은 200만원이다.

베스트 퍼포먼스상(상금 200만원)은 김단비에게 돌아갔다.

경기 중 진행된 3점 슛 콘테스트에서는 BNK의 이소희가 역대 최다 4번째 우승에 도전한 강이슬 이후 6년 만에, 사직체육관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을스타전은 20명의 선수가 WKBL의 새 캐릭터 이름을 딴 ‘팀 유니클’, ‘팀 포니’로 나눠 경쟁했다.

부산에서는 2019-2020시즌(금정체육관) 이후 6년 만에, 사직체육관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을스타전은 20명의 선수가 WKBL의 새 캐릭터 이름을 딴 ‘팀 유니클’, ‘팀 포니’로 나눠 경쟁했다.

‘팀 유니클’에는 을스타 투표 1위 이이지마 사키(하나은행)를 필두로 김소니아, 신지현, 이해란(삼성생명) 등이 나섰다.

‘팀 포니’로는 투표 2위 김단비(우리은행)를

재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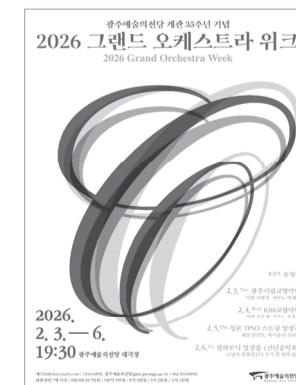
/연합뉴스

2026년 시무식 겸 청렴선포식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위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

